

장성 황룡강노란꽃잔치 300억 경제효과

방문객 89% 외지인... 1인 평균 3만5천원 지출
3년 연속 100만명 방문... 전남 대표축제 입증

장성의 가을 대표축제인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지난해 가을 대풍 영향으로 일정을 줄이고도 300억원대 경제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노란꽃잔치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방문객 가운데 외지인의 소비 규모는 299억9,000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87%를 차지했다.
노란꽃잔치의 총 방문객 수는 100만 2,986명으로 이 가운데 89만3,661명이 외지 방문객이었고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약 3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노란꽃잔치는 지자체 최초로 도시 브랜드 컬러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대표 축제다.
2016년 장성공원에서 열린 첫회는 소규모 꽃축제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황룡강으로 장소를 옮기면서부터 본격화 됐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집콕만 가득했던 황룡강을 10억 송이 꽃이 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으로 탈바꿈시켰다.
노란꽃잔치는 지난해 포함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에 이어 두번째 전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됐다.
올해 전남도는 장성군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도가 운영하는 각종 관광설



지난해 장성 황룡강노란꽃잔치의 총 방문객수 가운데 89%가외지 방문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 제공

명화와 홍보관에 노란꽃잔치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두석 군수는 "황룡강은 옐로우시티 장성의 미래와 비전, 희망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2020년 노란꽃잔치

'지역 정체성 확립' 나주학 연구 착수

올해 진흥위 출범... 역사·문화·경제·산업 체계화

나주시가 역사·문화·경제·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나주학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나주학 진흥위원회를 출범하고 연구 영역과 학술연구, 정책 포럼, 시민 아카데미 등을 연다.
또 이달 말부터 지역학 연구의 기초 자산이 되는 유물 수집·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 나주 역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는 등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역학 연구·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학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산을 종합·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치능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방 도시 위기 극복의 하나로 지역학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기초자치체로 확산하는 추세다.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의 사명감과 호남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자긍심을 토대로 나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인권운동 대부' 고 흥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

화순군, 인권·민주 정신 배움터 활용

민주·인권운동의 대부인 고 흥남순 변호사의 화순 생가가 복원됐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도곡면 효산리 흥남순 변호사의 생가 복원사업이 마무리됐다.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목조 초가 형태로 복원했으며 안채와 문간채 등 84㎡ 규모의 건물 2층을 건축하고 마당과 담장 등을 정비했다.
지난 1912년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난 고 흥남순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1세대로 평생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시대의 의인'이다.
그는 1963년 서울 공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광주5·18구속자협의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회와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섰다.
화순군은 흥 변호사의 생가를 민주·인권 정신을 기리고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근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 선사문화 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등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화순군은 도곡면 효산리에 인권운동의 대부 고 흥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화순군 제공

'일자리 창출 군정 최우선 과제 추진'

함평 올해 청년·신중년 등 계층별 고용 총력

함평군이 올해 군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군은 청년·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해 함평군은 취약계층 149개, 청년층 65개, 중장년층 14개 등 총 22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지역 내 부족한 고용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카페'를 새롭게 개소해 총 186명의 청년들에게 취업상담·취업멘토링 등 구직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군은 지난해 성과를 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신규 일자리 시책을 더하면서 지역 고용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확보한 7억원의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총 15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연중 실시해 기존에 취·창업한 청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장년·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4050 희망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재편해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온라인마케터 등 4차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청년일자리 카페와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구직자 취업·고용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담양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 사업 추진

벼·원예·축산 등... 내달 5일까지 읍·면 접수

담양군이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 사업을 추진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42개 사업 66개소를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총 22억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식량작물 분야에는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등 2개 사업 8개소, 원예 분야는 담양 신품종 딸기 재배단지 확

대보급시범 등 4개 사업 5개소가 대상이다. 또 신소득과수작물 분야는 패션프루트 저비용 부가온 하우스 월동재배 등 10개 사업 16개소를 지원한다.
축산분야는 ICT 이용 한우 번식우 모 델농장 육성 시범 등 14개 사업 17개소, 농촌자원 분야는 치유농업육성 시범 등 8개 사업 10개소, 교육경영분야는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10개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농산물가공교육, 정보화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교육을 추진해 농업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희망농가는 해당 읍면의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해 사업별 추진계획을 상담한 후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현지평가와 2월 중순 농업산학협력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담양=장동원 기자

화순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시행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연중 무료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기 검진은 인지기능의 손상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선별하는 전문 검사 도구(MMSE-DS)로 진행한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또는 인지저자 증상이 현저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 원인 규명이 필요하면 협약 병원과 연계해 혈액 검사·뇌 영상 촬영 등 감별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치매안심팀이나 상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서호령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나주 올해 달라진 복지시책 홍보

나주시는 최근 나주문화센터에서 열린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에서 올해 달라진 주요 복지시책을 안내했다.
시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기초연금 인상 지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개편 ▲전체 경로당 정수기 지원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다문화 어머학교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주=염규동 기자

박춘희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달라지는 시책의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염규동 기자



함평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함평군이 설 연휴를 맞아 13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연휴 기간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배출할 것으로 보고 농공단지 등 주요 산단과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에 축사를 포함한 주

요 민원발생사업장 등도 포함시켜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민원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결과 법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화순군청 행복민원실, '소망지 달기' 이벤트

화순군은 행복민원실에 '소망나무'를 설치하고 '소망지 달기'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정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군민, 직원들이 올해 소원을 종이에 적어 소망나무에 다는 이벤트다. 소망나무는 행복민원실 1층 정문, 행복민원실 안 농협 입구 2곳에 설치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공간

을 마련했다. 소망지는 오는 2월 정월 대보름 행사때 태울 계획이다.
민원인들은 "소망나무 행사를 하니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포근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꿈과 바람이 담긴 소망나무가 잘 자라길 바란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서호령 기자